

참가 작가들에게 듣는다



김영하



서하진

공통 질문

- Q1. 이번 낭독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
- Q2. 낭독회를 마친 소감?
- Q3. 작가 낭독회를 평가해 주신다면?

A1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의 출판 시장은 굉장히 배타적이다. 그들은 자국어로 된 소설을 읽으려는 성향이 강해서 한국문학이 진출하기란 쉽지가 않다. 미국

을 비롯한 해외에 한국문학이 진출하기 위해서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2년 전에 뉴욕에 있는 출판 담당하는 AGENT와 계약을 했다. 그 후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를 올해 7월에 출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낭독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A2 예전에 이런 낭독회에는 주로 한국 교포들이 많았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번 낭독회에는 현지 학생들이 많이 참가한 것 같다. 한국학, 한국문학, 한국어의 저변이 많이 확대된 듯한 생각이 들었다. 작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읽어주는 독자를 만나게 되어서 좋았고, 이런 점이 내게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A3 한국 작가들에게는 이런 식의 낭독회는 생소하지만 실상 미국의 작가들에게는 늘 있는 일이다. 책을 출간하면 서점, 학교 등을 돌면서 낭독회를 하고 있다. 미국의 출판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는 상당히 바람직한 행사다. 또 이번 행사는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잘 진행되었다. 이런 행사가 축적이 되면 결국 한국문학의 힘이 되지 않을까 한다. 낭독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독자들과의 교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하지만 이번 행사가 Bilingual(두 개의 언어로)로 진행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행사였다.

A1 지금까지 외국어로 번역된 한국소설은 ‘좋은 소설’ 보다는 ‘번역의 의미’가 있는 소설이 대부분이다.

아마도 외국 번역가들이 한국 작가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한국고유의 작품이나 독특한 소설을 번역가가 선택해 번역했기 때문이다. 내 작품 역시 외국 번역가가 선택해 번역을 하게 되었고, 한국문학을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 낭독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A2 처음 참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행사를 보니 한국의 내로라 하는 유명작가들이 참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나도 유명한 작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웃음). 작가로서 독자를 만난다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이다. 특히 조지아대학의 경우 이런 식의 한국문학 발표 낭독회는 처음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곳에 정말 많은 한국학생들, 외국인들이 왔었고, 낭독회 후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열의를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조지아대학을 비롯해 매회 낭독회를 마치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A3 솔직히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소위 문학을 한다는 내가 관심이 부족해서 일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좋은 의미의 행사는 좀더 대대적으로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행사가 문학하는 사람들한테는 힘이 될 것이고, 독자들에게는 한국문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할 계기가 될 것이다.